

〈사례보고〉

## 고등학생의 음주행동 영향요인

박경민\*, 양윤경\*\*†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생

---

## Factors Associated with Drinking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Kyung Min Park\*, Yun Kyoung Yang\*\*†

\*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the drinking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There were 620 subjects who were first and second graders of seven high schools in Daegu. This study used Sinhaengwoo (1998)'s drinking behavior scale, Rowlison and Felner (1988)'s stress scale, Kovacs (1981)'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Rosenberg (1965)'s self-esteem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18.0 program.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s (IRB) of the Keimyung university hospital(No. 12-112). **Results:** The mean score for drinking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was 23.1points. Factors influencing drinking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were identified as self-esteem( $t=-3.67, p<.001$ ), stress( $t=6.79, p<.001$ ), school types( $t=4.02, p<.001$ ), sex( $t=-3.67, p<.001$ ). These factors explained 27% of drinking behavior reported by high school students.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which factors are majors influencing drinking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Therefore, self-esteem enhancement could be considered as an effective strategy to reduce the drinking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s:** Stress, Depression, Self-esteem, High school student, Drinking behavio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대한 편으로 청소년기의 음주행동은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본드 흡입, 흡연 등 잘못된 약물의 사용과 약물남용 같은 청소년 일탈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2011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종합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음주경험률은 남학생 53.6%, 여학생 50%, 전체 51.9%로 절반이상의 청소년이 음주에 노출되고 있다. 최초 음주연령이 13.8세로 성장발달이 급속도로 이뤄

지는 중요한 시기에 일찍 음주환경을 접하게 되므로, 올바른 생활습관과 사고 정립을 위해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음주고교생이 65.7%로 중학생 38.2%보다 높고, 일반 계고 61.5% 보다 특성화고가 75.5%로 높게 나타났다. 비음주자나 음주환경노출에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교생 및 학교유형별 연구가 필요하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1).

현재 음주를 하고 있는 학생 중 55.5%가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 소주 1병 이상, 여자 소주 5잔 이상의 과량이었으며, 남학생 53.7%, 여학생 58.7%로 높게 나타났다. 음주 후 문제행동 정도를 파악하는 문제음주율은 남학생은 38.8%, 여학생 41.2%로 청소년의 음주 후 문제행동

---

Corresponding author : Yun Kyoung Yang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2800 Dalgubeol daero, Dalseo gu, Daegu, 704-701, KOREA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Tel: 053-610-7807 Fax: 053-610-7892 E-mail: ykyang@kmu.ac.kr

▪ 투고일: 2013.04.09

▪ 수정일: 2013.06.03

▪ 게재확정일: 2013.06.24

또한 심각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P], 2012).

청소년 음주는 성인에서의 음주보다 다양한 문제를 보인다. 적은 양의 알코올 섭취로도 심장, 간, 장 등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해 및 폭력의 위험성을 높이며 지적·정서적 자기형성에 장애를 가져와 판단력이 흐려지고 기억력 감퇴로 학습저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So, Sohn, June, & Yi, 2010). 또한 친구를 비롯한 부모, 교사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이나 두려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고, 자존감의 저하를 초래하여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성인보다 빨리 알코올 의존에 이르게 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Lee & Jung, 2007).

또한, 청소년 음주는 청소년기의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청소년기는 가정의 보호에 의존하게 되는 아동기와 독립된 존재로서 생활하게 되는 성인기의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정립에서 혼란스럽고 복잡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 초기에 급속한 신체발달과 자아의 성장, 사회적 역할의 확대와 그에 따른 복잡한 적응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변화를 겪는다(Jung, 2009).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주요 관심사인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기 쉽다. 스트레스는 일정수준 이상이 유지될 때 인간의 신체적 및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어 적대감, 불안, 우울 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정신건강은 음주와 관련성이 있다(Son, 2010). Yoon (2005)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음주와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스트레스는 청소년 음주의 동기로 작용하고 또한 음주를 함으로써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는 음주 기대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여(Maria, Anthony, Helena, Craig, & George, 2011), 음주가 정신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청소년기의 음주행동으로 인한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으로 판단된다.

청소년 음주와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우울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다. 청소년기의 우울은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특성 중 하나로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높은 우울을 경험하며, 특히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자살에 처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Fuller, Hamelin, & Granger, 2013), 우울을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시도 위험이 7.89배나 더 높았으며(Park, 2008), 현재 음주하는 경우 우울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비음주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Kim & Jun, 2007).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지나친 스트레스는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게 하고, 욕구충족의 잘못된 시도로 음주나 약물남용을 하게 된다(Park, 2008). 특히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고등학생이 겪는 학업 또는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우울 및 음주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유추된다.

청소년기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긍정적이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신감 형성 및 창조성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부정적이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신감 저하 및 무능력감을 가져온다(Lim & Lee, 2007). 부정적 자아개념이나 자기비하는 우울을 초래하며 학교생활에 부적응 학생은 또래로부터 거부됨과 동시에 일탈적 또래와 어울리기 쉬우며(Hargreaves, McVey, Nairn, & Viner, 2013), 반사회적 활동과 약물 남용 등을 통해 또래집단과의 잘못된 소속감을 느끼고자 한다. 단기적으로 또래집단과의 소속감으로 안정감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우울을 심화시킬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음주와 우울 간에 조절효과가 있고, 음주량과 관련하여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Foster & Neighbors, 2013; Son, Lee, & Yang, 2011) 청소년기 음주와 우울 조절에 중요 변인이며, 스트레스 조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스트레스 역시 우울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음주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각 변인들이 다중으로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음주행동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 보고된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을 통합적으로 다룬 논문은 거의 없었으며, 특히 자아존중감과 음주행동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의 대상은 주로 청소년기의 중학생, 성인기의 대학생과 중년여성이었다. 평생의 건강습관을 좌우하는 청소년기의 음주율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음주행동의 영향요인으로 자아존중감도 포함시킨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과 상관성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학교보건사업에서 적합한 금주 및 음주

예방을 위한 교육전략을 수립하는데 그 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음주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고등학생의 음주행동,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한다.
-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행동 정도를 파악한다.
- 고등학생의 음주행동,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고등학생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 II.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2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D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고, 대상자가 미성년자이므로 학생 및 학부모 모두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대표성을 위하여 2012년 D광역시 교육청의 자료를 토대로 D광역시 국,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63개교, 특성화 고등학교 21개교 중 학생수에 따른 비례층화표집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4개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3개교를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각 학교별 100명씩 총 700명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700부 중 불성실한 응답이 있거나, 답을 확인하기 곤란한 응답지 80부를 제외하고, 620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수집 중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5분이었으며,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학용품과 문화상품권을 답례로 제공하였다.

### 2. 연구도구

#### 1) 음주행동

음주행동은 보통 음주경험, 음주량에 대한 측정이나, 문제음주군을 선별하기 위해 1989년 WHO에 의해 개발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를 사용되나, 본 연구에서는 절단점에 의한 선별이 아닌 음주행동의 정도를 음주경험이나 음주량보다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Shin (1998)이 개발한 음주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의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그런 적 없다’의 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 측정되고, 점수의 범위는 20~100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음주의 빈도와 음주량이 많으며 음주로 인한 사고 등 관련 문제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Moon (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8이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4이었다.

#### 2)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Rowleson & Felner (1988)의 자기 보고식 설문지(Daily Hassles Questionnaire [DHC])를 기초로 하여 Han & Yoo (1995)가 개발한 척도를 Shin (1999)이 수정한 Likert식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의 1점에서부터 ‘심하게 받는다’의 5점까지 측정되고, 점수 범위는 27~135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Lee (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2이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4이었다.

#### 3) 우울

우울은 Kovacs (1981)의 소아 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Cho & Lee (1990)가 한국형 CDI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CDI는 Beck (1967)의 성인용 우울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를 7~17세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변형시킨 것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제시되어 있는 3개의 서술문 중 지난 2주일 동안 자신을 가장 잘 묘사하는 서술문 1개를 골라서 표시하도록 하며, 우울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0~2점으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0~54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한국형 CDI 도구의 Cronbach's  $\alpha$  =.82이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4이었다.

####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965)가 개발하고, Jon (1974)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4점 척도의 10개의 문항이며, 문항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의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거의 그렇지 않다’는 1점, ‘항상 그렇다’는 4점으로, 점수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Nam, Lee, Lee, & Lee (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0$ 이었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행동,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행동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과 음주행동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때 명목 척도는 dummy 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음주행동 영향요인에 대한 regression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잔차,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상관관계는  $-.00\sim.79$ 로  $.80$ 이상인 설명변수는 없어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으며, Durbin - Watson 통계량은  $1.88$ 로  $2.02\sim1.53$  범위에 있어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공차한계(tolerance)  $.59\sim.89$ 로  $1.0$  이하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13\sim1.69$ 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문제는 없었다. 또한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검정 결과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도 만족하였다.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 값은  $1.0$ 을 초과하는 값은 없었다.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이 모두 충족되어 회귀분석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를 시행하였다(No. 12-112). 연구 과정동안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함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 과정에서 언제든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한 후 연구자가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해당학교의 연구결과 전파를 막기 위해 실시 후 즉시 블라인드 밀봉을 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17세 이하 503명(81.1%), 18세 60명(9.7%), 19세 이상 57명(9.2%)으로 17세 이하가 대부분이었고, 남학생 284명(45.8%), 여학생 336명(54.2%), 일반계고학생 362명(58.4%), 특성화고학생 258명(41.6%)이었다. 종교가 없는 경우 339명(54.7%), 기독교 109명(17.6%), 불교 118명(19.0%), 기타 종교 54명(8.7%)으로 종교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음주경험이 있는 경우가 386명(62.3%), 음주경험이 없는 경우는 234명(37.7%)으로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이 더 많았다<Table 1>.

### 2. 대상자의 음주행동,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의 정도

대상자의 음주행동의 정도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최소 20점, 최대 95점 중 평균  $23.1\pm 8.0$ 점이며, 스트레스 정도는 135점 만점을 기준으로 최저 27점, 최고 131점 중 평균  $82.5\pm 23.1$ 점으로 중간보다 다소 높았다. 우울 정도는 63점 만점을 기준으로 최저 0점, 최대 46점 중 평균  $16.3\pm 7.9$ 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정도였으며, 자아존중감은 40점 만점을 기준으로 최소 11점, 최대 40점 중 평균  $27.6\pm 6.1$ 점으로 중간보다 높았다<Table 2>.

&lt;Table 1&gt;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620)

Characteristics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
Age(years)	≤17	503	81.1
	18	60	9.7
	≥ 19	57	9.2
Sex	Male	284	45.8
	Female	336	54.2
School types	Academic school	362	58.4
	Vocational school	258	41.6
Grade	1	488	78.7
	2	78	12.6
	3	54	8.7
Religion	None	339	54.7
	Protestant	109	17.6
	Buddhist	118	19.0
	Others *	54	8.7
Drinking Experience	Yes	386	62.3
	No	234	37.7

\* Catholic were included(n=10).

&lt;Table 2&gt; Scores for drinking behavior, stress, depression, and self-esteem

(N= 620)

Variable	Range	Min	Max	Mean±SD
Drinking behavior	20 ~ 100	20	95	23.1± 8.0
Stress	27 ~ 135	27	131	82.5±23.1
Depression	0 ~ 54	0	46	16.3± 7.9
Self-esteem	10 ~ 40	11	40	27.6± 6.1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행동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행동 정도는 성별 중 남자는 24.4±9.9점, 여자는 22.0±5.7점으로 유의한 차이( $t=3.81, p<.001$ )를 보였다. 학교유형 중 일반계고학생은 21.4±6.0점, 특성화고학생은 25.4±9.7점으로 유의한 차이

( $t=-6.15, p<.001$ )를 보였고, 종교는 없는 경우가 22.4±7.3점, 기독교는 22.5±6.1점, 불교는 24.1±8.4점, 기타 종교는 25.9±12.7점으로 유의한 차이( $F=3.92, p=.009$ )가 있었다. 그러나 나이( $F=1.74, p=.175$ ), 학년( $F=0.20, p=.813$ )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Table 3> Scores for drinking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620)

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D	t or F	p
Age(yr)	≤17	22.8± 7.8	1.74	.175
	18	24.6± 9.8		
	≥ 19	24.0± 7.8		
Sex	Male	24.4± 9.9	3.81	<.001*
	Female	22.0± 5.7		
School types	Academic school	21.4± 6.0	-6.15	<.001*
	Vocational school	25.4± 9.7		
Grade	1	23.0± 8.1	0.20	.813
	2	23.1± 7.7		
	3	23.7± 7.5		
Religion	None	22.4± 7.3	3.92	.009*
	Protestant	22.5± 6.1		
	Buddhist	24.1± 8.4		
	Others <sup>†</sup>	25.9±12.7		

\* p<.05, † Catholic were included(n=10).

<Table 4> Correlations among drinking behavior, stress, depression and self-esteem Level

(N=620)

Variable	Drinking behavior
	r(p)
Stress	.28(<.001)
Depression	.35(<.001)
Self-esteem	-.45(<.001)

4. 대상자의 음주행동과 스트레스, 우울 및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음주행동과 관련요인 간 상관관계는 스트레스(r=.28, p<.001), 우울(r=.35, p<.001)이 높을수록 음주행동의 정도는 높았으며, 자아존중감(r=-.45, p<.001)이 낮을수록 음주행동의 정도가 높았다<Table 4>.

5. 대상자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 파악을 위해 음주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학교유형, 종교의 3개 변수와 음주행동과 상관관계를 보인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의 3개 변수, 총 6개 변수를 가능한 영향요인으로 하여

회귀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 성별, 학교 유형, 종교의 3개의 변수들만 포함하고 있는 Model 1은 예측 회귀모형으로 유의하며( $F=37.87, p<.001$ ) 음주행동의 5%를 설명하였는데, 학교유형( $\beta=.24$ )이 음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 특성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3개 변

수와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이 모두 포함된 Model 2는 예측 회귀모형으로 유의하며( $F=60.57, p<.001$ ), 음주행동을 27%를 설명해주었다. 대상자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beta=-.33$ ), 스트레스( $\beta=.25$ ), 학교유형( $\beta=.15$ ), 성별( $\beta=-.13$ )이다<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drinking behavior

(N= 620)

Variable	Model 1 $\beta$	Model 2 $\beta$
General Characteristics		
Sex	-.07	-.13*
School types	.24*	.15*
Religion	.06	.05
Stress		.25*
Depression		.01
Self-esteem		-.33*
F	37.87*	60.57*
R <sup>2</sup>	.05	.28
Adj R <sup>2</sup>	.05	.27

\*  $p<.001$

#### IV.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음주행동에 영향 요인인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과 상관계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학교보건사업에서 적합한 교육전략을 수립하는데 그 결과를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고등학생 중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은 62.3%로, Yoon (2005)의 연구에서의 62.0%, 2011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고등학생 음주경험률인 65.7%와 큰 차이가 없지만 White & Huselid (2012)의 미국청소년 10학년 35.4%, 12학년 48.6%의 음주경험률 보고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술에 대해 관대하고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음주문화가 청소년들에게 문제의식 없이 음주를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이며 (Jun, 2006), 청소년기의 음주행태는 잘못된 습관으로 굳어져 사회전체의 음주문제로 악화될 수 있기에 이 시기의 올바른 음주행동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성인기의 알코올 남

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27.6점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Lim & Lee, 2007)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2006; Lee & Jung, 2007; Lee, 2010)와 일관된다.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82.5점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Yoon (2005)의 연구에서 60.9점, Lee (2010)의 연구에서 평균 80.9점 보다 높게 나왔으며, 우울 정도는 평균 16.3점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 (2009)의 연구에서 13.2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Son (2010)의 연구에서 15점보다 비교적 높았다. 이는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점이 과거의 연구보다 근래의 연구가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므로 스트레스와 우울의 수준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고등학생의 음주행동에 대한 영향은 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음주행동의 정도가 높았고, 이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수준이 높을수록 음주행동 정

도가 높고(Jung, 2009; Lee & Lee, 2009; Maria, Anthony, Helena, Craig, & George, 2011; Son, Lee, & Yang, 2010), 자아 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은 금주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다(Hargreaves, McVey, Nairn, & Viner, 2013; Lee, Kim, & Kweon, 2009; Son, 2010). 이는 고등학생들은 입시 또는 취업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교우관계가 한정되어 있고, 사회활동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대처방식과 건강한 생활양식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 스트레스 및 우울에 취약하고 이로 인해 음주에 많이 노출된다고 사료된다.

학교유형별 고등학생 음주경험률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So et al. (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학교유형에 따라 음주경험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일반계고 학생의 경우 입시위주의 학교생활과 진학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압박이 심하고,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빠른 사회진출이 음주경험시기를 앞당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별 역시 남자 청소년의 음주경험이 여자보다 많았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Jung & Lee, 2008; Lee, 2010; So et al., 2010), 성별도 음주행동의 영향요인으로 여겨지지만 일부 연구에서 성별이 음주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Kim, 2006; Lee, 2010; Lee & Jung, 2007) 성별과 음주경험과의 관계를 확정짓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성별( $\beta=-.13$ )은 음주행동에 강력한 영향요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학교유형( $\beta=.15$ ) 역시 약한 정도의 영향요인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에서 음주행동의 가장 큰 영향요인은 자아존중감( $\beta=-.33$ )이었다.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음주의 조절효과가 있고, 음주량과 관련해서 완충적인 역할을 하므로(Foster & Neighbors, 2013; Son et al., 2011), 고등학생 음주행동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재를 위해 기존 음주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정신건강증진 전략의 추가시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코칭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코칭은 개인이 자신감을 자지고 자기 자신의 목표를 키우며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고 스스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여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서, 행동관리 전략 및 위기관리 등의 다양한 음주 예방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별화하여 적용 가능하므로 음주행동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고등학생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주

지 않았다. 이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한 Kim & Kim (2013)의 연구 및 Cho (2006)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다. 그러나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의 우울이 높다고 보고한 Kim & Jun (2007)의 연구 및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o et al. (2010)의 연구와 Son (2010)의 연구에서 우울이 문제성 음주에 영향요인이라고 보고한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음주가 우울에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많은 선행연구들은 보고하고 있으며, 문제성 음주자일수록 우울성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음주가 개인의 정서적 부적응 중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우울이 음주행동의 영향요인으로 유의한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이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이므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학교유형에 따른 우울정도가 음주행동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지식과 정보 전달 중심의 예방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청소년의 음주행위는 증가되고 있다(KCDCP, 2012). 이는 기존의 예방교육의 한계로 보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음주예방교육이 대부분 1회성 프로그램임을 고려할 때,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재정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음주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고등학생의 음주행동 예방을 도모하며, 초기 아동기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음주예방 홍보를 위해 라디오 및 TV 방송 등과 같은 대중매체와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하는 음주예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음주를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예방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 역시 필요하다.

## V. 결론

본 연구는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법을 이용한 인과관계 연구로 고등학생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음주예방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고등학생의 음주행동은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학교유형, 성별에 영향을 받았고, 그 중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증진이 음주행동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한 추후 중재연구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는데 유용한 자료라 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자아존중감의 증진에 중점을 둔 중재를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고등학생의 음주행동 예방을 도모하고, 낮은 자아존중감의 취약한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여 중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관리 및 상담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학생의 음주행동 영향요인을 감안한 학급단위나 음주경험군 중심의 소규모 개별화된 음주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학교현장에서 맞춤형 음주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 Reference

- Cho S. C., & Lee Y. S. (1990). Development of the Korean form of the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9(4), 943-956.
- Cho, H. L.(2006). The Study on factors affecting drinking behaviors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rch*, 14, 51-75.
- Foster, D. W., & Neighbors, C. (2013). Self-consciousness as a moderator of the effect of social drinking motives on alcohol use. *Addictive behaviors*, 38(4), 1996-2002.
- Fuller, T. E., Hamelin, G. P., & Granger, S. J. (2013). Research article suicidal ideation in a population-based sample of adolescents: Implications for family medicine practice. *The Journal of Family Medicine*, 28, 1-11.
- Han, M. H., & Yoo, A. J. (1995). Development of daily hassles scale for childre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4), 49-64.
- Hargreaves, D. S., McVey, D., Nairn, A., & Viner, R. M. (2013). Relative importance of individual and social factors in improving adolescent health. *Perspectives in Public Health*, 133(2), 122-131.
- J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University Publish Research*, 11(1), 107-129.
- Jun, E. K. (2006). Study on drinking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2(3), 285-314.
- Jung M. S., & Lee D. S. (2008). An analysis on the control effects with sex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effect factors and drinking behavior of teenagers. *Journal of Korea Youth Research*, 15(1), 29-58.
- Jung, W. Y. (2009). *A study on the related factors of adolescent's drinking behavior : focused on the adolescent's in cheongju city*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 Kim, H. O., & Jun, M. S.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drinking and the mental health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1(2), 217-229.
- Kim, J. K., & Kim, G. H.(2013). Factors affecting drinking and drinking frequency among Korean Youth. *Journal of Korea Youth Research*, 20(2), 317-346.
- Kim, Y. M.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social control factors on adolescent drinking and smoking. *Journal of Korea Youth Research*, 13(6), 151-178.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raw data)*. Seoul, Korea: Author.
- Lee J. H. (2010). Effects of social environment on adolescent alcohol us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lcohol Science*, 11(2), 61-72.
- Lee J. S., & Lee B. J. (2009).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daily stress and coping motives on the adolescent's alcohol-related problem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1(2), 1-21.
- Lee, C. S., Kim, S. J., & Kweon, Y. R.(2009). The effect of smoking and drinking prevention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2), 105-115.
- Lee, D. S., & Jung M. S. (2007). The analysis of the effect factor on drinking behavior of teenagers: Focused on high school students of Gwangju & Jeonnam district. *Social Welfare Policy*, 31, 125-148.
- Lee, H. S. (2010). Self Esteem, Stress,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who are Victims of Bully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17(4), 548-556.
- Lee, J. Y., Nam, S. K., Lee M. K., Lee, J. H., & Lee S. M. (2009). Rosenberg' self-esteem scale: Analysis of item-level validity. *Journal of Korea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1(1), 179-189.
- Lim, S. K., & Lee, H. S. (2007). The effects of self-esteem,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9(3), 169-183.
- Maria, M., Anthony, F. J., Helena, R., Craig, A. O., & George, C. P. (2011). Association of adolescent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with alcohol use disorders in young adulthood: The victorian adolescent health cohort study. *Medical journal Australia*, 195(3), 27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1). *Comprehensive survey of harmful environmental contact of youth*. Seoul, Korea: Author.
- Moon, I. S. (2008). *The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 and Depression on Drinking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Oh, H. A., Park, Y. R., & Choi, M. H. (2008).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on suicide ide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4(1), 35-43.
- Park, E. O. (2008). The influencing factors on suicide attempt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3), 465-47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wlison, R. T., & Felner, R. D. (1988). Major life events, hassles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Confounding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and adjustment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3), 432-444.
- Shin, H. W. (1998). *The effect of personality and drinking motivation on drinking behaviors*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Shin, J. E. (1999). *A study on the psychosocial factors affecting of adolescent's depressio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o, A. Y., Sohn, S. Y., June, K. J., & Yi, G. M. (2010). The influence of depression, temperament, characteristic on alcohol drinking i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in Gangwon-do.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12(2), 181-191.
- Son, A. R. (2010). The effects of stress and depression on problem drinking. *Journal of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7, 61-79.
- Son, A. R., Lee, Y. S., & Yang, M. Y. (2011). The effect of drinking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 Moderating effect of alcohol consump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lcohol Science*, 12(1), 113-122.
- White, H. R., & Huselid, R. F. (2012). *Gender differences in alcohol use during adolescence*. In R. W. Wilsnack, S. C. Wilsnack (eds.), *Gender and alcohol: Individual and social perspectives* (pp. 176-198). New Brunswick, NJ: Rutgers Center on Alcohol Studies.
- Yoon, Y. S. (2005).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adolescents' drinking : Focusing on the high school students of jeollabuk-do*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Jeollabuk-do, Korea